**빌0413 Note**

**◆본절에 대한 해설: 노용범 목사**

빌0413.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할 수 있게 하시는 /엔뒤나모오:권능을 부여하다,할 수 있다,강하게 하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이스퀴오: 힘을 갖다,힘을 행사하다,할 수 있다,선하다,힘이 강하다/ 참고 이스퀴오;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풀어지는 무제한적인 능력)

위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미래의 목적과 소원에 대한 강한 가능성과 자신감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후 문맥으로부터 떼어내어 독립적으로 사용하면, 그러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본문속(빌4:11~14)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 본래의 의미는.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앞날의 확신보다는,

오히려 현 상황이 어떠하든지(풍부하던지,비천하던지), 일절 현재의 처지 안에서 온전하게 자족해야 한다는 “자족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헬라원어본문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니...

헬라어 ”엔 호이스 에이미 아우타르케스 에이나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11절) 은 <현재형 문장>으로, 바울이 현재 자족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헬라어 “이스퀴오” (할수 있느니라-13절)도 <현재형문장>으로, 앞으로가 아닌 현재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충분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현재의 핍박과 고통을 피하기 위한 장래의 소망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통 그 현장 자체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족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어떠한 처지에 있던지,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찾아내고 초연한 태도로  자족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의 특별하고도 강한 능력이 아닙니까?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면 장래도 만족할 수 없는 법입니다-----감사합니다.

온세계 교회 노용범